

195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론 연구 -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을 중심으로 -

김 세 령*

논문초록

200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 혹은 기독교 관련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의 양적 확대는 ‘기독교’와 연결된 스펙트럼을 지나치게 넓혀 ‘기독교문학’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 논의들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을 다시금 체계화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독교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1950년대-1960년대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는 문인들을 중심으로 개론적인 진술에 머물고 있지만, 기독교 작가가 창작한 ‘기독교’ ‘문학’이라는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면서 한국 기독교문학론의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한국 기독교문학의 성과를 통해 ‘기독교문학’의 토착화를 기독교 문학 모색하였다. 한국문학 안에서의 기독교의 ‘수용’을 강조하다보니 ‘기독교’와 관련된 당대 창작들을 ‘기독교문학’으로 폭넓게 포함시키면서 문제점을 표출하였지만, 평론가와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논의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1990년대-2000년대에는 기독교문학의 다원화 양상이 강하게 드러났다. 문학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심화된 논의를 보여주고 있으나, ‘기독교문학’의 스펙트럼을 과도하게 넓히면서 ‘기독교문학’의 정체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독교문학의 유의미한 개념과 범주를 다시 정리해 보면, 기독교문학이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문학’의 두 측면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문학’과 기독교와 ‘관련’된 문학을 구분하여 연구 과제를 세분화하고 심화시켜 나갈 때 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 기독교문학, 기독교 작가, 기독교, 문학, 토착화, 다원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기금조교수

2012년 8월 16일 접수, 9월 4일 최종수정, 9월 24일 게재확정

I.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 혹은 기독교 관련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심화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문학, 한국 문학 속 기독교 수용,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 담론 양상, 기독교와 여성 작가와의 관련성, 기독교 관련 상상력이나 성서 모티프, 기독교 토착화, 기독교 비판, 영지주의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과 밀착된 작품뿐만 아니라 기독교 수용이 드러나거나 반기독교적인 작품까지 폭넓게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¹⁾.

-
- 1)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 주목하고 있는 주요 논의로는 김세령(2000)의 “전영택의 초기 소설 연구.”(『상허학보』. 6), 양왕용(2002)의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세계관의 토착화 양상.”(『한국문학논총』. 30), 김경완(2002)의 “기독교소설 <옥호괴연>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통합연구』. 15(2)), 임영천(2005)의 “김원일 기독교소설 연구.”(『한국문예비평연구』. 16), 김문주(2006)의 “김현승의 시와 기독교 신앙의 특징.”(『국어교육』. 120), 김석환(2006)의 “김현승 시인의 초기 기독교시 연구.”(『한국문예비평연구』. 21), 김인섭(2008)의 “개화기소설 『성산명경』에 나타난 기독교변증적 대화와 문학적 수사”(『배달말』. 42), 문용식(2008)의 “백도기 소설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실존.”(『신앙과 학문』. 13(2)), 송태현(2008)의 “두 문화의 만남: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통해 본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충돌.”(『신앙과 학문』. 13(3)), 김영숙(2008)의 “이청준 소설의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박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기에도(2009)의 “198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담론 양상.”(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이동하(2010)의 “정찬 소설과 기독교의 관련 양상.”(『현대소설연구』. 43), 정재립(2011)의 “타자에 대한 사랑과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신앙과 학문』. 16(1)), 노승욱(2011)의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통전적 구원사상.”(『신앙과 학문』. 16(3)) 등이 있다.

또한 기독교 수용을 드러내고 있는 대상을 다루고 있는 주요 논의로는 김종희(2001)의 “한국문학에 수용된 기독교사상 연구.”(『어문논문』. 109), 양진오(2004)의 “기독교 수용의 문학적 방식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어문학』. 83), 김미영(2004)의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현대소설연구』. 21), 김병학(2004)의 “한국 개화기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연구.”(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조경덕(2010)의 “기독교 담론의 근대서사화 과정 연구.”(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송인화(2010)의 “전영희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정체성.”(『한국문예비평연구』. 31), 김미영(2011)의 “이상의 <지주회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국어국문학』. 15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주요 논의로는 박남훈(2002)의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토착화 양상.”(『한국문학논총』. 30), 방민화(2005)의 “성서적 모티프와 기독교 의식.”(『문학과 종교』. 10(2)), 박상준(2006)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한국현대문학연구』. 19), 차봉준(2008)의 “한국 현대소설의 성서 모티프 수용 연구.”(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이동하(2009)의 “이문열의 소설과 기독교.”(『한국현대문학연구』. 28), 정재립(2010)의 “근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양적 확대는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와 연결된 스펙트럼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기독교문학’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 기독교문학론을 연구사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은 한국 기독교문학론의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향점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50년대 이후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 설정에 주목한 기독교문학론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한국 기독교문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방대하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개괄적인 정리에 머물기보다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독교문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들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문제인식을 예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논의들이 연구사 검토 부분에서 한정된 대상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벗어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한국 기독교문학론 중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에 주목하고 있는 유의미한 논의들을 모두 포함하였다²⁾. 이때 기준시점을 1950년대로 잡은 이유는 이 시기부터 한국 ‘기독교문학’에 대해 평론이나 연구 성과의 형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개화기를 전후한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부터 해방공간까지 한국 ‘기독교문학’의 의미 있는 창작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단순히 기독교의 영향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문학론’의 형태로 다양한 논자들을 통해 발전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 논의들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독교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1950년대 이후의 성과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당대의 한국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 논의들이 갖는 내재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 논의들이 갖는 의미망을 재구성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의 세 양상.”(『서강인문논총』, 27), 신익호(2011)의 “민중의식적 신앙관과 ‘육망’의 구조 통한 신앙적 갈등 양상.”(『현대문학이론연구』, 46) 등이 있다.

2) 각 시기별로 기독교문학이나 기독교 관련 문학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지만,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에 집중한 논의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 소실 등으로 입수가 불가능한 자료를 제외하고 195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과 관련된 주요 자료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리한 과정을 통해 1950년대-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³⁾, 여기에서 발견된 특성들이 각 장의 소제목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II장에서는 1950년대-1960년대 기독교 작가가 창작한 ‘기독교’ ‘문학’ 정립에 대해서, III장에서는 1970년대-1980년대 ‘기독교문학’의 토착화와 관련된 다양한 모색들에 대해서, IV장에서는 1990년대-2000년대 ‘기독교문학’의 다원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을 다시금 체계화하고, 한국 ‘기독교문학’ 연구의 지향점에 대해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기독교 작가가 창작한 ‘기독교’ ‘문학’ 정립

6.25 전쟁 이후 좌파의 이념 문학이 배제되면서, 1950년대에는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우파의 본격문학이 한국문학의 주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문학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종교사상을 전면에 내세운 ‘호교 문학’으로 폄하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1960년대의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비판을 벗어나면서도, 그 동안 미비했던 한국 ‘기독교문학’에 대한 준거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논의는 소설가이자 목사였던 전영택(1957)의 “기독교문학론”이다. 그는 가장 넓은 의미의 기독교 문학을 “깊고도 높은 신앙이 근저가 되고 주류가 되어 문학을

3) 본 연구에서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20년 단위로 시대 구분한 것은 편의상의 구획은 아니다.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변화의 기점이 되는 글을 준거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는 기독교 작가가 창작한 ‘기독교’ ‘문학’의 정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의 논의는 김희보(1969)의 글에서 집약적인 발전을 보이다가, 명계웅(1970)의 글에 와서 이전 시기와는 차이화된 논의로 구별된다. 1970년대-1980년대는 한국기독교문학의 성과를 통해 ‘기독교문학’의 토착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시기의 성과와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글은 한승욱(1989)의 글이며, 김봉군(1991)의 글을 통해 1970년대-1980년대 기독교문학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부각된 지점들을 포착하는 새로운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2000년대에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견해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기점이 되는 각 글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루었던” 성서 문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지배를 깊이 받은 단테·밀턴·파스칼·키에르케고르·도스토옙스키·체스타틴·크로델·모리아크 등 서구의 기독교 작가들을 예로 들고 있다. 기독교문학론이 진전되기 이전의 논의이다 보니 ‘기독교문학’의 준거를 한국문학 내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그는 기독교 내에서 간과되고 있었던 기독교문학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성서 문학과 관련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독교문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구문학 고전 중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전영택은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통찰을 보여준다.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듯이 기독교 관련 테마 사용 여부가 기독교문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신앙과 체험’이 ‘문학적 기교’보다 근거지에 놓였는가, 기독교의 핵심인 ‘구속(救贖)’이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기독교’와 ‘문학’의 구성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문학’보다는 ‘기독교’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신앙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 작가’를 상정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전영택의 작품 세계가 후기로 갈수록 문학적 형상화보다는 기독교 사상을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사실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영택의 기독교문학론은 후속 논의들로 이어지면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소설가 임영빈(1959)은 “한국기독교문학이란”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보여준다. 기독교 문학이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새로 지어진 영혼, 그 영혼의 생활을 진실되이 문장으로 그려놓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 전영택과는 달리 ‘기독교’와 ‘문학’ 모두가 강조되며, 기독교인이 창작했다고 해서 기독교문학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성숙된 신앙의 단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영빈은 한국의 기독교문학이 드문 것은 기독교가 내면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박히지 못한 탓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평론가 김우규와 시인 박두진의 기독교문학론에서 더욱 심화된다. 김우규(1959-1960)는 “한국 기독교 작가론”에서 기독교 정신의 주체적 파악이라든가, 그 한국적 특성의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기독교적 소설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 있는데, 아직은 기독교가 ‘생활’로서 체현되기보다는 다분히 ‘관념’으로 수용되고 있는 형편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소설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모색의 의욕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영택(평민의식과 종교), 임옥인

(서정의 좌표), 김말봉(애정의 윤리), 이종환(휴머니즘의 억양), 임영빈(풍자성의 효용) 등 기독교인 작가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독교 소설의 한국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한국 기독교 작가의 과제로 기독교 정신의 주체적 수용, 기독교의 한국적 성격 창조, 기독교를 사회적·윤리적·문화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존자체의 문제로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임영빈이 성숙된 신앙과 기독교의 토착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연결된다. 김우규는 작가 자신의 인생관과 생활이념이 온전히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의거하는 한편, 수입문화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 특수성에 충분히 여과되어야 하며,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지 않는 실존으로서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그가 정의하고 있는 기독교 소설은 “신학적 비평과 문학적 비평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인정되는 작품”이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기독교적 테마를 취급한 작품인 동시에 문학적 기준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전영택이 ‘기독교’의 측면을 더 부각했던 것과는 달리, 후대로 갈수록 ‘기독교’뿐만 아니라 ‘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한국 기독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속에 초기에는 ‘기독교’의 비중이 크게 드러날 수 있음도 간파하고 있다. 즉 T.S.엘리엇이 진정한 기독교 문학은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는 기독교적인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생활화된 서구의 종교적 풍토에서 자란 작가에게서나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처해있는 비기독교적 사회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을 표방하는 작품이 어느 시기까지는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전면에 노출되어 소설적 형상성이 빈약한 임영빈의 소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독교’뿐 아니라 ‘문학’의 비중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두진(1964)의 “기독교와 한국의 현대시”도 소설이 아닌 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 김우규의 문제인식과 유사한 논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뚜렷한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시를 거의 갖지 못한 이유로 기독교적인 영향이 생명적으로 반영될 만한 문화적인 토양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민족적인 전통의 깊은 근원을 필요로 하는 한국 현대시의 생성에서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기엔 체질을 달리하는 하나의 신흥종교로서 너무 생경했고 연조가 얇

왔고 힘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문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어떻게 한 시인의 생존감과 더불어 순수한 직관을 통한 창조성을 획득하느냐가 기독교시를 성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한 시인이 그 체험한 사상이나 신앙을 시의 본질적인 요소인 언어로서의 민족성으로 혈육화시키느냐가 한국의 기독교시의 형성에 가장 긴요한 문제이다...(중략)...아무리 신비롭고 심오하고 황홀한 신앙적인 체험일지라도 또 아무리 투철하고 성실한 기독교사상의 준봉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민족시로서의 언어의 질적인 획득과 그 구사력을 얻어 갖지 못하고는 기독교시의 창조는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다(박두진, 1964: 60).

위의 예문에서처럼 ‘기독교시’는 “기독교적 체험과 시로서의 민족어, 즉 기독교종교적인 체험과 정서, 감각, 사상을 어떻게 생명적으로 시의 본질에 붙어넣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적 체험은 ‘기독교인 시인’, ‘기독교’의 요소가 되며, 시로서의 민족어는 ‘문학’의 요소가 된다. 청록파의 한 사람으로서 문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박두진의 경우, 다른 논자들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의 측면보다는 문학적 형상화의 측면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예문에서처럼 기독교 신앙이나 사상의 깊이가 아니라 민족시로서의 언어의 질적인 획득과 그 구사력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논의를 집약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글은 『기독교사상』에 관여했던 김희보(1969)의 “기독교 문학 서설”이다. 그는 우선 크리스천이 아니고는 참다운 ‘기독교문학’을 창조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문학’의 작가는 크리스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논자들의 글에서 암시적으로 유추되었던 부분이 뚜렷하게 표명되고 있으며, 이 지점이 후속 ‘기독교문학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전 논의들과는 달리 기독교문학의 성격, 기독교문학의 작가, 기독교문학의 본질, 기독교문학의 사명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더 진전시키고 있다. 김희보는 기독교문학의 성격은 헤브라이즘적인 것, 죽음을 응시하는 것, 나그네로서의 실존적인 것,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독교문학의 작가는 기독교적 양심과 작가적 양심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이율배반에 찢겨야 하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기독교문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먼저 문학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소재, 구성, 표현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기독교 문학의 ‘소재’는 신앙이란 직접 체험에 죽음이

란 교양 체험이 합치되어야 완전한 작품이 창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구성’을 통해 기독교 문학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며, ‘표현’에 너무 기교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기독교문학의 사명과 관련하여 ‘소금의 문학’, ‘만남의 문학’, ‘참여의 문학’이 되어야 하고, 절망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문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문학과 관련된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기독교에 있어서의 문학’과 ‘문학에 있어서의 기독교’를 구분하고 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문학’은 말 그대로 호교 문학이다. 호교문학이란 기독교를 옹호하고 선전하고 선교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서 기독교의 도그마를 문학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중략)...이와 반대로 ‘문학에 있어서의 기독교 작품’은 기독교적 모랄을 위해 쓴 작품이 아니다. 그렇다고 문학적 모랄을 위하여 크리스천의 입장을 떠난 작품도 아니다. 기독교와 문학의 모랄을 함께 살린 작품이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문학’ - 즉 호교문학은 기독교 문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테올로기의 목적 아래 쓰여진 작품은 순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문학이나 다를 바가 없다.

‘문학에 있어서의 기독교’ - 이것만이 ‘기독교 문학’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랄과 문학의 모랄을 함께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김희보, 1969: 29).

이처럼 김희보는 당대 기독교 이데올로기 문학으로 폄하될 수 있는 호교 문학을 거부하면서, ‘기독교’와 ‘문학’의 균형을 갖춘 ‘문학에 있어서의 기독교’를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 ‘문학’의 두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둘 중 하나에 더 비중을 두었던 다른 논자들과는 달리, 김희보는 크리스천인 동시에 작가로서 균형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타당하게 생각된다. ‘기독교문학’에서 ‘기독교’와 ‘문학’의 균형이 갖는 중요성은 전영택의 소설에서 적절하게 발견된다. 그의 초기 소설은 ‘기독교’와 ‘문학’의 길항 작용 속에서 기독교적 사고를 내재화함으로써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죄와 용서, 사랑과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모색했다. 그러나 기독교와 문학의 균형점이 무너지게 되면서, 후기의 작품들은 기독교나 반공산주의의 교조적 도구로 사용되고 만다(김세령, 2000: 283).

지금까지 살펴본 1950년대-1960년대의 기독교문학론은 기독교 작가가 창작한 ‘기독교

교' '문학'이라는 개념과 범주를 정립시키고 있다. 이 시기의 논의는 기독교인 시인이거나 소설가 같은 실제 기독교문학 창작에 참여했던 문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한국 기독교문학론의 의미 있는 토대를 형성했지만, 문인들을 중심으로 초창기에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개론적인 진술에 머물렀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III. '기독교문학'의 토착화 모색

1970년대-1980년대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는 신성의 '자폐성'과 '외래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1970년대 전후 성행했던 토착화·세속화론에 영향을 받았다(송상일, 1985: 370). 이에 기독교가 한국문학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통해 '기독교문학'의 준거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모색들이 이루어졌다. 이전 시기의 논의가 반복되거나 다소 진전된 논의(이상섭, 1976: 조남기, 1978: 조신권, 1978; 김희보, 1979; 이민자, 1987)도 일부 발견되지만, 대부분 전문적인 논의로 발전된 양상을 띠고 있다.

평론가 명계웅(1970)의 “한국기독교문학의 모색”은 이전 시기의 논의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인다. 그는 기독교문학이 침체된 이유로 '기독교문학 자체의 개념설정'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작가의식'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을 드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비평문학의 부재'에서 온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독교가 우리 문화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단순한 분석을 벗어나, 기독교문학과 밀착된 원인을 발견해냄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그는 기존에 기독교문학으로 평가받았던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인 고찰을 가하고 있다.

여지껏 기독교문학의 계열에 든다는 대부분의 소설작품이 어떤 숭고한 종교성에 근원을 두고서 「전적 진리」(the Whole Truth)를 묘출해낸 감동적 작품이었다기보다는, 거개가 고작 형식주의적인 것에 농도 열은 반발감을 느낄 정도의 편협한 속사만을 다룬 감상적 작품이거나, 아니면 성서의 줄거리나 등장인물, 배경 등을 그대로 차용해온 개작 정도에 불과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빈혈성이야말로 한국의 기독교문학이 시급히 탈피해야 될 문젯점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명계웅, 1970: 327).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광수의 작품들은 기독교적이기보다는 톨스토이적인 휴머니즘의 색채가 짙은 감상적 작품으로, 전영택과 임영빈의 작품은 설교조의 작품을 탈각하지 못한 어중간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또한 심훈의 『상록수』는 지엽적인 소재만을 다루고 있으며, 성서 이야기를 테마로 삼은 소설작품들은 기독교의 궁극적 관심을 천착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독교 소설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비평은 기독교 ‘관련’ 문학을 ‘기독교문학’으로 쉽게 분류하였던 기존 연구 태도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문제적인 것은 김은국의 『순교자』를 한국 기독교문학사에서 기념비적 작품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본격적인 기독교문학의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를 전후한 토착화, 세속화론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무신론주의자인 작가의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기독교문학’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과격적으로 보인다. 그는 금욕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것, 프로적인 것만을 기독교문학의 정수로 인식했던 전통 기독교의 이원론적 비평관에 반대하면서, 반기독교적 작품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닐 때에 기독교문학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기독교문학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반기독교적인 작품까지 포용하기에는 ‘기독교문학’의 범주가 광범위해지는 동시에 ‘기독교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기독교문학’에 대한 범주 확대는 후속 논의들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평론가들이 한국 기독교문학론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문적인 비평문학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뒷받침에 힘입어 당대 기독교문학으로 분류되었던 의미 있는 창작들이 나오게 된다. 평론가 김병익과 송상일의 비평문은 1970년대 기독교문학을 대상으로 한 실제비평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병익(1979)의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는 한국시가 기독교적인 문학을 상당수 창조한 반면 한국 소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감성 혹은 정서로 받아들였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사실과 연결 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소설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염상섭의 『삼대』를 기독교의 정치화로, 김동리의 『무녀도』와 『사반의 십자가』를 기독교의 샤머니즘화로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의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두 개의 잘못된 기독교관을 온

전히 조명해 내고 있다.

특히 그는 1970년대 유랑민근성을 극복한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과 카오스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백도기의 『청동의 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두 소설은 당대 진보적 신학자들의 의식의 격렬성에는 못 미치지만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보았다. 1)기독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자신의 사상과 정신의 근거로 정당하게 흡수했고, 2)이러한 세계관과 인생관의 작용은 30년대 스타일의 기독교에 격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와 삶, 구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3)기독교적 현실인식과 기독교인의 책임이 당대 한국의 해방신학의 사회참여와 교회의 윤리적 결단과 흐름을 함께 하면서, 주인공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맴돌기보다 그 밖으로 뛰어나와 고통 받는 인간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의 개조에 헌신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이며 계획적으로 기독교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엘리엇가 말한 바람직한 ‘무의식적인 기독교적 문학’을 생산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정치적 활동의 대속물로 혹은 샤머니즘의 왜곡된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던 기독교가 이 시기 한국인에게 정당한 사유와 심성, 기독교의 본질에 육박하는 삶의 태도로 바람직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문학’은 초창기의 고정된 개념과 범주 설정의 관심을 벗어나, 구체적인 한국 기독교소설의 실체를 통해 당대 사회와 현실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관심사가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기독교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내면화와 토착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 본질에 근접하면서도 기독교적 현실인식과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호교 문학이 아닌 문학적 형상화가 갖추어진 무의식적인 기독교적 문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독교 작가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문학’의 균형과 함께 기독교의 ‘내면화’와 ‘토착화’, 기독교적 ‘현실인식’과 기독교인의 ‘책임’이 강조된다. 1950년대-1960년대의 기독교문학론의 인식이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적용되는 한편, 당대의 토착화론이나 해방신학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송상일(1979)의 “부재하는 신과 소설”은 김병익의 글에 동조하면서, 기독교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소재’가 아니라, ‘문제’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독교적 테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관념화된 기독교를 벗어나 기독교 신앙과의 대결을 통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진정한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당시 간행되었던 서기원의 『조선백자 마리아상』,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백도기의 『가룟 유다에 대한 증인』을 긍정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런데 김병익의 글이 기독교문학의 ‘기본 요건’을 강조하면서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면, 송상일의 이 글은 기독교문학의 기본 요건은 누락된 채 당대의 ‘새로운 모색’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글은 기성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기독교문학’은 기독교를 문제 삼고 부재하는 신을 찾는 신앙의 체험들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그만의 기준에 맞추어 반기독교적인 소설도 기독교문학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인 양왕용(1980)의 “시와 기독교의 만남에서의 몇 문제”는 평론가들이 당대의 소설 성과로부터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설정했던 것과는 달리, 김희보, 구창환, 사대웅, 김영수 등의 기독교문학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독교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그는 이교도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작가가 기독교를 소재로 하여 쓴 작품(예를 든다면,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나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같은 것)들이 기독교인에게 읽혀져 깊은 신앙적 감동과 자기 신앙의 양상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기독교문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문학의 기준을 작가가 아닌 독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Incarnation(성육)되느냐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문학이나 기독교 관련 문학을 연구할 때, 기독교 문학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작품을 기독교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외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독교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것인지의 판단 여부는 주관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작가나 독자의 신앙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작품과 관련된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둘 때 타당한 분류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독교 토착화를 위한 조급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시’라는 용어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시’라는 용어를 선전하고 장르를 설정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란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진정한 기독교인에 의해 기독교적 상상력 내지 신학적 상상력에 의해 쓰여진 기독교적인 시가 오히려 토착화 방법론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 동안의 기독교문학론의 개념과 범주 설정이 도식화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문학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진술이다. 그러나 앞서 명계웅이 제시했듯이 기독교문학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 설정 문제가 선행 조건으로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편 구창환(1981)의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사상”도 개화기 소설과 근대 소설의 기독교 사상을 고찰하면서, ‘기독교문학’은 기독교적인 소재나 배경이 아니라 기독교사상과 정신이 그 속에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구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문학’의 개념이 ‘기독교’와 ‘문학’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초창기 논의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문학은 종교의식의 생활화와 체험적인 토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 시기 기독교문학론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기독교문학의 표현방법은 직접적인 경우와 간접적인 경우, 그리고 비판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성교리의 옹호와 신앙의 간증이고, 다음은 함축적인 것으로서 기독교사상을 용해시켜 나타내는 경우이다. 끝의 것은 기독교의 모순과 비리를 풍자 비판하는 경우로서 모두 제 특질을 가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할 것은 예술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정신을 구현시키는 방법이다...(중략)...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문학도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휴머니즘 문학이 되고, 산업화와 조직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상실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인간화의 문학이 되며, 바람직한 생의 자세를 제시하는 모랄의 문학이 되고, 사회적 부조리와 물질만능의 병폐와 기계기술의 도전에 대응하는 저항문학의 일을 담당하고, 인간존재의 새로운 의미를 천착하는 내면탐구의 문학이 되며, 독자들을 정신적으로 일깨워주는 새로운 계몽문학, 개안의 문학이 되어야 하겠다(구창환, 1981: 306-307).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구창환의 경우도 기독교문학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기독교 정신이나 사상이 내포되고 숨겨지는 성육화의 방법(간접적인 표현)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또한 기독교 독자에게 가장 의의 있는 현대문학의 일부는 어떤 교회의 신도도 아닌 작가들과 스스로를 솔직하게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로 자처하는 작가들에 의해 쓰여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은총 속에 비기독교인의 작품에서도 기독교 정신과 사상이 내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작가들의 작품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작품의 경우 반기독교적인 작품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지 않고 기독교문학의 범주를 확대시킬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기독교문학의 범주가 확대되다 보니 기독교

문학의 나아갈 방향도 추상화되어 비기독교 문학의 역할과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논의들도 한국 기독교문학의 성과들을 통해 기독교문학의 토착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970년대와 공통된다. 하지만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 설정에 있어서 토착화론이나 민중신학의 영향으로 1970년대 광범위하게 확대된 논의를 다시금 재정비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인 박이도(1981)는 기독교를 자기 생활 내지 사상의 풍토로 체질화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장 기독교문학에 가까운 것은 주제가 그 정신에 의해 구축된 것이고, 다음으로 기독교적인 문화 풍토를 소재, 배경으로 밀착시키고 이를 잘 소화한 분위기에 의한 것이며, 이런 여건은 반드시 문학적으로 성공했을 때 살아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자가 쓴 작품인지 아닌지가 기독교문학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그의 기독교문학론은 ‘토착화’와 함께 ‘기독교’와 ‘문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평론가 황현식(1982)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성서문학이나 외국의 기독교문학 작품을 소개 해설하고 빌어온 이론을 적당히 주를 달아 도식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독교문학을 우리의 체질에 맞게 토착화하는 문제에 너무나 소홀히 해 왔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독교 문학 작품들은 종교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호교적이며 신앙고백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성서적 모티프가 창작이 아닌 각색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반기독교적 문학 작품도 적지 않은 것은 센세이셔널리즘이 창작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토착화 논의와 함께,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재정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독교문학으로 인식되어왔던 기독교인의 문학, 기독교의 문학(성서문학), 기독교를 위한 문학(호교문학), 문학 속의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적인 문학’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학’은 그 작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작품이 기독교적 요소를 지닌 문학으로, 기독교의 정신이 훌륭하게 나타나 있는 문학이다. 이때 ‘기독교’란 말에 둔 논리적 비중보다는 ‘문학’에 둔 비중이 크며, 도식적 신학의 표출이 아닌 작가의 무관심성 속에 있는 문학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기독교’보다는 ‘문학’에 비중을 두는 한편, 기독교작가라는 조건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반기독교적 문학 작품은 기독교 문학에서 제한하고 있다.

평론가 김주연(1984)은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를 통해 과거의 보수신학에서 최근의 민중신학에 이르는 현대시의 변모과정에 주목하면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제 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 예수의 기본 성격을 파괴해서는 곤란하다며 기독교문학의 ‘토착화’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주연(1985)은 “왜 기독교 문학인가”에서 ‘기독교’와 ‘문학’의 올바른 관계 맺기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문학에 초월성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이중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보다는 기독교문학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문열, 김성동, 조성기, 이창준 등의 소설에 주목하고 있어 기독교적인 소설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소설까지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학연구가인 한승옥(1989)의 “기독교와 소설문학”은 이 시기 기독교문학론의 성과와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식민지시대 소설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데 비해 최근에 들어서는 비로소 개념화된 소재주의적 수용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 삶의 일부로 육화된 기독교적 소설이라 평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문학의 ‘토착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 문학사에서 참다운 기독교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 작가는 황순원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기독교의 사상이 육화되어 샤머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물론 한국인의 근원적인 근성까지도 문체 삼으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생경하게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의 나갈 바도 함께 제시한 전범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전문적인 작가론의 시각에서 이광수, 전영택, 염상섭, 심훈, 김동리, 황순원 등의 작가 개인사와 연결하여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소설의 범주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부정적 시각의 기독교관을 작품에 투영시켰고 그 인물들도 적극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던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소재를 왜곡시켜 샤머니즘화하는데 주력한 김동리의 작품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1970년대-1980년대의 기독교문학론은 평론가와 문학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전문화된 논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다만 ‘토착화’를 강조하면서 한국 문학 속의 ‘수용’에 주목하다 보니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가 확대되면서 기독교의

일부 특성이 발견되는 문학, 기독교 비판으로 드러나는 반기독교적인 문학까지도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보인다.

IV. '기독교문학'의 다원화 현상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는 개론적인 고찰(임영천, 1995; 조신권, 2008)도 발견되지만, 대부분 절대적 가치가 부정되고 상대적 가치가 인정받았던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문학의 토착화 모색에서 드러났던 광범위한 개념과 범위 설정이 보다 확대되었고, 기독교문학의 다원화 현상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 기독교문학 관련 논의들이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론, 세부 주제론 등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에 집중한 논의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문학연구가 이상설과 차봉준의 논의가 있다.

이상설(1999)은 1970년대-1980년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형식적인 원칙으로 정하려는 시도를 바리새인적인 태도로 비판하면서 기독교문학의 판단 기준은 독자(연구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작품 속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기독교문학이 될 수 없고, 작품 속에서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용되어 독자에게 신에 대한 반성이나 관심을 유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작가'가 아닌 '기독교 독자'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때 그가 설정한 '기독교문학'은 기독교적 요소가 있는 작품을 망라하되, 비기독교인이 반기독교적 내용을 다룬 것도 과감히 기독교적 문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학작품으로서의 성공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측면도 고려되고 있지만, '기독교'의 함의가 '기독교적 요소'로 최대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설은 한국문학 속에 나타난 기독교 문학의 양식을 기독교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문학,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문학, 기독교적 역사관에 근거한 문학, 반기독교적 문학에 대한 새로운 양식의 창출, 인간의 욕망과 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문학, 치열한 리얼리티 정신에 입각한 휴머니즘이 내재된

문학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경향파 작가들에 의해서 창작된 반기독교 소설, 인간주의의 문학과 악마주의의 문학이 만나는 소설처럼 기독교와 대립되는 소설들이 폭넓게 포함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 관련 문학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기독교문학의 토착화 논의보다도 기독교문학의 범주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기독교가 ‘아닌’ 문학을 기독교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한편 차봉준(2009)의 “한국 기독교 소설의 전개와 변이 양상”도 이상설의 문제인식과 유사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한국의 기독교 소설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소설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개화기로부터 근대 신문학 형성기 이전까지의 작품들로 주로 개화의식과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계몽 의식을 표방하고 있는 작품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신문학 형성기로부터 해방 전후에 해당하는 작품들로서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독립의식의 표방과 한국 기독교의 문제의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6.25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다수의 작품들로 전쟁이 가져다 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적 전착과 아울러 한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지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성서 모티프를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주류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신신학적 해석 등 사유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들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차봉준, 2009: 359).

그의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문학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려는 의도가 지나쳐, 반기독교적인 문학의 다수를 기독교소설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가령,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소설로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작품은 작가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질게 받은 경향소설에서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주목하는데, 3.1운동의 실패 이후 기독교에 대한 극복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배척받고 있는 영지주의⁴⁾를 비주류 기독교로 파악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에 포함시

4)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잡다한 이교적 사상과 뒤섞은 종교혼합주의 운동으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왜곡 변질시켜 초세기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런 영지주의를 비롯한 갖가지 위협에 직면하여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구원 진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

키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예들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일부 언급되었던 바 있지만, 정통 기독교 세계관과 현격한 차이를 갖는 세 번째 단계의 영지주의는 이 글에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자 본인도 인식하고 있듯이 영지주의적 세계관은 정통 기독교의 세계관과 동떨어진, 심지어는 심각하게 왜곡된 관점의 세계관이다. 그럼에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영지주의가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 대중 속으로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문학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통 기독교 세계관에서 거부된 세계관을 ‘기독교’라는 광의의 개념 속에 비주류로 포함시킬 때, ‘기독교’라는 핵심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문학은 호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야 하며, 때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혹은 그 사상적 모순까지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감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문학이 지향할 바라는 점에는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열린 시각으로 작품의 범주를 넓혀나가는 것이 장차 기독교 문학이 당당히 문학의 한 범주로서 그 자리매김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는 방편이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독교문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을 벗어나 기독교가 ‘아닌’ 문학, 기독교 ‘관련’ 문학을 기독교문학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독교 문학연구자들이 한국 기독교 관련 문학들의 방대한 계보나 그동안 간과되었던 지점들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문학의 성과가 부족한 실정에서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 관련 문학까지도 기독교문학에 포섭하려고 시도하거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용인될 수 있는 종교문학으로서의 기독교문학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기독교문학의 필수 요건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기독교 문학과 기독교 관련 문학이 구분되지 않을 때 기독교문학의 정체성은 약화되며, 독자들에게 ‘기독교’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을 기독교적 세계관⁵⁾ 안

고 설명하며 선포할 책임과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 정경을 확정하고 신앙 고백문(신경)을 확립하였으며, 사도적 계승에 바탕을 둔 교제제도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탕을 둔 올바른 신앙의 선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송광섭, 2010: 123).

5) 넛슨은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중심한 진리에 대한 반성으로 심오해진 ‘체계화된 지혜’로 정의하였다. 한편 양승훈은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창조, 타락, 구속이

에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학연구가 김봉군(1991)은 “기독교 문학의 본질과 방향”에서 의미 있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는 기독교문학에 대해 복음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창작된 문학과 기독교적 소재를 다룬 작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접근했던 위의 논의들이 독자를 강조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그 작품 속에 기독교적 상상력이 담겨 있는 것과 독자가 어떤 작품을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읽어 내는 것은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독교문학의 개념 정의보다는 ‘역할’을 강조하는데, 자연주의와 진화론, 마르크스주의적 결정론, 프로이트 심리학 등 현대사상의 무신론적 인식체계의 도전을 이겨내고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이기주의, 폭력적 혁명과 전쟁, 낭비 경제적 원천의 세속사와 유물론적 인간을 영적 파동과 사랑으로 혁신하려는 선한 싸움의 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된 글이지만, 1970년대-1980년대 기독교문학론의 한계를 의미 있게 넘어서는 동시에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부각된 지점들을 먼저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좀 더 본격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는 논의로는 기진오(1992), 홍문표(1997), 이승우(1999)의 글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세 글 모두 기독교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 기독교는 모든 진리의 표준으로서 성경의 계시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독자에게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다(기진오, 1992: 79).
- 2)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중략)...기독교나 성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신앙적 확신, 분명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은 물론이고 문학적 창조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뛰어난 예술적 형식을 획득했을 때만 기독교 문학은 가능하다는 이중의 무거운 짐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홍문표, 1997: 133).
- 3)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작품이 기독교문학이다(이승우, 1999: 109).

라는 뼈대 위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보았다. 또한 창조-타락-구속의 틀 위에서 다양한 현실 세계를 조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성장해 감에 따라 더욱 더 완전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양승훈, 1999: 46-48).

문학연구가 기진오는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 기독교적인 생활원리가 내포되지 않은 문학을 기독교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학연구가 홍문표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학’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이광수의 호교적인 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김은국의 『순교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등 기독교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이며 회의적인 것을 드러낸 작품들에 대해서 순수한 기독교 문학작품으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 또는 실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소재를 다룬 작가들의 경우 비기독교적인 작품을 훨씬 많이 창작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작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편 소설가 이승우는 문학이 작가의 삶과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좋은 기독교문학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기독교문학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문학연구가 송태현(2008)의 “기독교와 문학”이다. 송태현은 기독교문학 연구의 권위자인 리러드 라이켄(Leland Ryken) 교수의 관점을 토대로 기독교 문학의 범위 설정과 관련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라이켄에 의하면 작가가 기독교적 경험과 신념을 문학 작품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성경이나 기독교의 교리나 상징에 대한 인유(allusion)로, 기독교적 소재와 관련된 것이다. 송태현은 한국문학의 경우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나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다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문학이라고 말하기 힘들며, 김은국의 『순교자』도 육이오 전쟁 당시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목사들의 삶을 다루었지만 이는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문학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기독교적인 관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inclusive christian viewpoints)이다. 이는 기독교신앙이 다른 종교나 윤리의 관점과 중복이 되는 넓은 영역에 속하는 경우이다. 송태현은 심훈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소설 『상록수』에서 드러난 기독교적 희생정신을 높이 인정하고 있다. 비그리스도인의 작품에도 기독교와 공유하는 면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선한 특질과 타고난 축복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인 관점을 독점적으로 전시하는 것(exclusively christian viewpoints)이다. 이는 주제가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에 관한 문학으로, 어떤 소재라도 상관없으며 그 작품이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소재를 다루더라도 반기독교적인 작품이 있을 수 있고, 작가가 비그리스도인일 경우 기독교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며 진리의 일부를 공유한다 할지라도 그가 쓴 작품을 기독교 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난점을 지니기 때문에, 송태현은 세 번째 정의를 ‘기독교문학’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기독교 ‘관련’ 문학과 ‘기독교 세계관’이 바탕이 된 ‘기독교문학’을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학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작품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신익호(2005)의 견해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기독교 작가라는 것이 기독교문학을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 조건이 필요 조건인 것만은 사실이나 크리스찬으로 제한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작가와 문학의 관계는 작가와 종교의 관계와 아주 다르다. 어떤 작가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도 그를 기독교 문학 작품만 쓰는 기독교 작가라고 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나 교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작품을 쓸 수도 있고, 반면에 피테 같은 비기독교 작가들이 쓴 작품이 기독교 문학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신앙 척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더구나 작가의 생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더욱 그렇다. 작가의 개인적 신앙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의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려 하거나, 그의 작품이 기독교적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작가도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믿는지의 사실을 말해 주는 작품은 거의 없다. 그 대신 작품은 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 아닐지도 모르는, 혹은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관념을 표현한다. 그렇다고 기독교 이념에 동감했다고 해서 작가가 기독교인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이란 총체적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개인적 신앙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작가를 크리스찬으로 제한시킨 것은, 기독교 문학이라 했을 때 영적 체험을 문학적 체험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교리적 관념에 머물러 독자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탈피하고자 하기 위한 합리화이다(신익호, 2005: 178-179).

위의 예문에서처럼 ‘기독교문학’을 ‘기독교인의 문학’으로만 한정할 때 그 판단의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⁶⁾ 이청준의 『낮은데로 임하소서』처럼 독점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을 드러내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을 작가가 비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로 기독교문학에서 제외한다면(송태현, 2008: 53), 이는 반기독교적 문학을 기독교문학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비기독교인의 문학은 일반 은총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가령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이청준이나 김병익의 일부 작품은 어느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⁷⁾.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을 ‘기독교문학’으로 정의하되, 기독교 작가의 제한을 벗어날 때 더 풍성한 기독교문학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때 유의할 점은 기독교 작가라고 해서 그의 모든 작품이 기독교문학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비기독교 작가의 작품 중에서 기독교문학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할 것이며, 한 작품 내에서도 기독교문학적 요소와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갈등할 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2000년대까지의 심화된 논의들은 소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단행본 형태의 적극적인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기독교문학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혔고 중요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내고 있다. 다만 광범위하게 기독교 ‘관련’ 문학을 ‘기독교문학’에 포함하게 될 때, ‘기독교문학’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V. 나가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1960년대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문학은 호교 문학’이라는 비판을 벗어나는 한편 그 동안 미비했던 한국 ‘기독교문학’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독교문학의

6) 작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황순원의 예를 들 수 있다. 황승욱(1993: 334)은 황순원이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노승욱(2011: 103-104)에 따르면 황순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였으며 교인으로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7) 실제로 대학 이후 기독교를 떠났다고 주장한 김병익은 “실존주의와 기독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나의 사유와 의식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자각해 왔으며 그것들이야말로 나의 사유 행위를 주도하는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김병익, 1998: 58).

성과가 미비하다는 문제 인식을 보여주거나 기독교 작가가 창작한 ‘기독교’ ‘문학’이라는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독교인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실제 기독교문학 창작에 참여했던 문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한국 기독교문학론의 의미 있는 토대를 형성했지만, 문인들을 중심으로 초창기에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추상적이며 개론적인 진술에 머물렀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둘째, 1970년대-1980년대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는 토착화신학의 영향을 받아 한국 기독교문학의 성과를 통해 ‘기독교문학’의 토착화를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평론가와 문학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전문화된 논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다만 ‘토착화’를 강조하면서 한국문학 속의 ‘수용’에 주목하다 보니 ‘기독교문학’의 개념과 범주가 확대되면서 기독교의 일부 특성이 발견되는 문학, 기독교 비판으로 드러나는 반기독교적인 문학까지도 기독교문학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보인다.

셋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독교문학의 다원화 양상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 시기 심화된 논의들은 소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단행본 형태의 적극적인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기독교문학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혔고 중요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내고 있다. 이는 한국 기독교 관련 문학들의 방대한 계보나 그동안 간과되었던 지점들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지만, 기독교문학의 필수 요건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지금까지 살펴본 195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 ‘기독교문학’의 유의미한 개념과 범주를 다시 정리해 보겠다. 기독교 문학의 개념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또한 온전한 ‘기독교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문학’의 두 측면 중 어느 하나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치열한 균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때 ‘기독교 세계관’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기독교 세계관’을 내재화한 참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협의의 범주 설정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은 평가자가 온전히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며, 기독

교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독교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반 은총이나 기독교에 대한 무의식적인 내재화로 인해 비기독교인의 문학 중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독교문학의 작가는 기독교인이어야만 된다고 한정하기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이라는 기독교 문학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를 기준으로 그 개념과 범주를 정의내리는 편이 더 유용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핵심 자질과 관련하여, 한국 ‘기독교문학’과 기독교 ‘관련’ 한국문학은 반드시 구분되어야만 한다. 한국 ‘기독교문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넓은 스펙트럼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문학’으로서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관련’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바탕이 된 문학인 ‘기독교문학’과 기독교와 ‘관련’된 문학을 구분하여 연구 과제를 세분화하고 심화시켜 나갈 때 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기독교인 문학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연구이다. ‘기독교문학’이나 기독교 ‘관련’ 문학을 연구할 때, 연구자의 세계관에 따라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연구도 ‘기독교문학’처럼 ‘기독교’와 ‘문학연구’라는 두 측면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일반 문학연구자로서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심도 있는 통찰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학연구는 표면화되지 않은 ‘기독교문학’ 속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 관련 문학의 기독교적 의미, 반기독교적 문학의 위험성과 한계 등을 포착해 내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고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기독교시론, 기독교소설론 등의 각 장르별 연구사,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문학의 개별 작품이나 개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심화된 논의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구창환 (1981).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사상.”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1』. 서울: 박문사.
- 기진오 (1992). “한국 기독교 문학사론 서설.” 『전농어문연구』. 5. 73-87.
- 김문주 (2006). “김현승의 시와 기독교 신앙의 특징.” 『국어교육』. 120. 501-529.
- 김병익 (1979).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2』. 서울: 박문사.
- _____ (1998). “생각 뒤에 숨은 생각.” 성민엽 엮음 (1998). 『김병익 깊이 읽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봉균 (1991). “기독교 문학의 본질과 방향.”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1』. 서울: 박문사.
- 김세령 (2000). “진영택의 초기소설 연구.” 『상허학보』. 6. 245-288.
- 김우규 (1959-1960). “한국 기독교 작가론.”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2』. 서울: 박문사.
- 김주연 (1984).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28(9). 148-163.
- _____ (1985). “왜 기독교문학인가.” 『기독교사상』. 29(10). 72-78.
- 김희보 (1969). “기독교 문학 서설-기독교문학의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1』. 서울: 박문사.
- _____ (1979). “기독교 문학은 무엇인가 - 그 본질.”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2』. 서울: 박문사.
- 명계웅 (1970). “한국기독교문학의 모색.” 『현대문학』. 16(6). 326-332.
- 박두진 (1964). “기독교와 한국의 현대시.” 『현대문학』. 10(10). 52-60.
- 박이도 (1981). “한국 기독교 시의 형성.” 『기독교사상』. 25(4). 185-190.
- 송상일 (1979). “부재하는 신과 소설.”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2』. 서울: 박문사.
- _____ (1985). “성·속의 이원론을 넘어서.” 한승옥·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2』. 서울: 박문사.
- 송광섭 (2010). “유사영성운동의 뿌리인 영지주의에 대한 고찰과 그리스도교적 대처방안연구.” 석사학위 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 송태현 (2008). “기독교와 문학.” 최태연·송태현·이경직·이경제·김경진 공저.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서울: 북코리아.
- 신익호 (2005).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문화연구』. 10. 165-180.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양왕용 (1980). “시와 기독교의 만남에서의 몇 문제-한국 근대시와 기독교①.” 『한국문학논총』. 3. 165-179.
- 유성호 (2003). “한국 현대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문학과 종교』. 8(2). 17-31.
- 이민자 (1987). “한국 기독교문학 성립에 대한 시론 (2).” 『어문연구』. 15(2). 267-280.
- 이상설 (1999). 『한국기독교 소설사』. 서울: 양문각.

- 이상섭 (1976). “신문학 초창기와 기독교-이광수와 김동인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한승욱·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2』. 서울: 박문사.
- 이승우 (1999). “한국 현대 문학의 진단과 기독교 문학의 과제.” 『신앙과 학문』. 4(3). 99-114.
- 임영빈 (1959). “한국기독교문학이란.” 『기독교사상』. 21. 80-84.
- 임영천 (1995).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 현대문학과 기독교』. 서울: 태학사. 11-26.
- 전영택 (1957). “기독교문학론.” 『기독교사상』. 1(1). 65-71.
- 조남기 (1978).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사상』. 243. 124-138.
- 조신권 (1978). “기독교문학의 본질·구조·기능.” 『현대사조』. 8. 36-39.
- _____ (2008). “기독교문학: 그 성격, 작가 및 상상력.” 『기독교와 어문학』. 5(1). 5-35
- 차봉준 (2009). “한국 기독교 소설의 전개와 변이 양상.” 한승욱·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1』. 서울: 박문사.
- 추태화 (2003).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기독교 문학 연구방법의 한 과제-.” 『신앙과 학문』. 8 (1). 141-167.
- 한승욱 (1989). “기독교와 소설문학.” 한승욱·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1』. 서울: 박문사.
- 한홍자 (2003). “현대시와 기독교 정신.” 임영천 외. 『기독교문학과 실천비평』. 서울: 푸른사상사. 179-203.
- 홍문표 (1997). “기독교 문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한승욱·차봉준 편 (2010).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 1』. 서울: 박문사.
- 황현식 (1982). “한국기독교문학의 모색.” 『기독교사상』. 283. 100-109.
- Gallagher, Susan V & Roger Lundin. (1989). Literature through the eyes of faith. 김승수 역(1995).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Middleton, J. Richard & Brian J. Walsh. (1995).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김기현·신광은 역 (2007).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경기: 살림출판사.

ABSTRACT

The Research Theory of Korean Christianity Literature Since 1950s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for Concept and Category of
‘Christian Literature’ –

Se-Ryo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critically investigated korean ‘christianity literature’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and category settings and proposed the direction of ‘christianity literature’ research. As the research theory of Korean christianity literature, this paper was included important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for concept and category of ‘christianity literature’ from the 1950s until recently.

The discussion of the 1950s-1960s was shown on establishing ‘christianity’ ‘literature’ created by Christian writers. It showed an introductory statement. However, it has formed an important foundation of korean christianity literature discussion. The discussion of the 1970s-1980s sought the naturalization of ‘christianity literature’. It was expressed problem on a wide establishment for concept and category of ‘christianity literature’. But It developed into more specialized discussions. The discussion of the 1990s-2000s Revealed the pluralism of ‘christianity literature’. It showed earnest and deepened the discussion. However, It threatened identity of the ‘christianity literature’. Therefore, we should be separated research korean ‘christianity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associated with’ christianity.

Key Words: korean christianity literature, christian writer, christianity, literature, naturalization, pluralism

